

三綱領 八條目の 대응관계로 본 《大學》의 이해

한 학 중*

〈目次〉

- | | |
|------------------------|------------------------------|
| I. 머리말 | 4. 丁若鏞의 견해 |
| II. 三綱領 八條目에 대한 기존의 견해 | III. ‘大學’의 이해와 三綱領 八條目の 대응관계 |
| 1. 朱熹의 견해 | 1. 三綱領의 이해 |
| 2. 朴世堂의 견해 | 2. 八條目の 이해 |
| 3. 鄭齊斗의 견해 | IV. 맺는말 |

I. 머리말

예로부터 《大學》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참으로 분분하다. 원문의 편차에서부터 자구의 오탈과 해석, 주제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 또한 자못 광범위하다. 다른 전적과 달리 유독 《大學》에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朱熹의 《大學章句》 편찬에 기인할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주희는 신유학의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禮記·大學》을 성리학적 논리로 재구성하여 《大學章句》를 편찬하였고,¹⁾ 이 일로 인해 세상에는 두 종류의 《大學》이 존재하게 되었다. 아울러 주희의 《大學章句》는 그 위력이 가히 폭발적이어서 한 시대를 풍

* 영진전문대학교 관광외국어통역전공 조교수

1) 이세동, 〈朱子の 《大學》 改本에 대한 考察〉, 《中國語文學》 第29輯, 영남중국어문학회, 1997년, 182쪽.

미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문체는 주희의 《大學》 개정 작업이 자못 인위적이었고, 이로 인해 내용 또한 원래의 그것과 사뭇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이 갖는 의미 또한 얼마간 변이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大學》에 대한 해석은 《禮記·大學》을 고수하는 견해와 《大學章句》를 추종하는 견해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²⁾ 이러한 연유로 《大學》이 갖는 고유한 의미의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더욱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大學》에 대한 해석은 朱熹의 修己治人과 丁若鏞의 修己治國이라는 견해로 대별될 수 있을 듯하다. 둘은 모두 인류사회의 태평성세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였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자는 의미의 중점을 人性의 혁신에 두었고, 후자는 人倫의 확산에 두었다. 그렇다면 원래의 《大學》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大學》의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大學》의 원문과 三綱領 八條目³⁾의 의미 해석

2) 예를 들면, 親民說과 新民說이 그러하고, 경문의 차서에 대한 다양한 견해 등이 그러하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자료들이 참고 된다.

김유곤,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1) -『대학장구』와 『고본대학』의 체제를 개정한 학자를 중심으로->《儒教思想研究》 第43輯, 한국유교학회, 2011년, 165-198쪽.

김유곤,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2) -고본대학口체제의 정합성을 인정하는 학자를 중심으로->《동양철학연구》 제66집, 동양철학연구회, 2011년, 7-40쪽.

박성규,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大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호, 2004.

이세동, <朱子の 《大學》 改本에 대한 考察>, 《中國語文學》 第29輯, 영남중국어문학회 1997년, 181-202쪽.

3) “三綱領 八條目”이란 용어는 주희가 《大學章句》에서 “此三者, 大學之綱領也.”와 “此八者, 大學之條目也.”라고 한 데서 비롯된다. 후에 三綱領 八條目 또는 三綱八目으로 칭하면서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는 주희 이후 신유학의 가치관 정립을 위해 사용된 용어이나, 흔히 ‘고본대학’을 의미하는 《禮記·大學》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 또한 三綱領 八條目과 완벽하게 부합하므로, 어느 것이든 특별히 이 용어의 전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大學》의 근간을 이루는 三綱領과 八條目の 대응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지 깊은 관심이 없었던 듯이 보인다.

겨우 주희의 “脩身以上, 明明德之事也. 齊家以下, 新民之事也.”⁴⁾의 언급과 鄭齊斗의 “修身以上. 明明德之事. 齊家以下. 親民之事. 格物致知則又爲止至善之工夫.”⁵⁾ 정도의 언급에 그칠 뿐이며, 丁若鏞 또한 “大學有三綱領. 三綱領各領三條目, 皆是孝弟慈. …… 然且文雖八轉, 事惟六條. 格物致知, 不當并數之爲八, 名之曰格致六條.”⁶⁾(大學公議二)라고 하여 三綱領과 소위 六條目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삼강령과 팔조목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大學》의 三綱領과 八條目이 갖는 의미와 삼강령 자체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며, 특히 三綱領과 八條目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유기적 대응관계를 살펴봄으로써 《大學》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大學》一書を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三綱領 八條目に 대한 기존의 견해

朱熹가 《禮記·大學》을 개정하여 《大學章句》를 편찬하면서 《大學》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해졌다. 김유곤에 따르면, 《大學》의 체제와 해석에 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대학장구』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논리적 타당을 보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三綱領 八條目”을 모든 경우의 《大學》 내용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며, 특별히 특정한 개념 용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4) 朱熹, 《大學章句》

5) 鄭齊斗, 한국고전종합DB > 한국문집총간 > 霞谷集 > 四書說 > 大學說

6) 丁若鏞, 한국고전종합DB > 한국문집총간 > 與猶堂全書 > 大學公議

노력한 경우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러한 경향을 취하였다. 둘째, 『대학장구』를 底本으로 하면서 차서를 일부 개정한 경우로, 대표적인 학자로 李彦迪(晦齋: 1491~1553), 高應陟(杜谷: 1531~1605), 崔攸之(艮湖: 1603~1673), 朴世堂(西溪: 1629~1703) 등이 있다. 셋째, 『고본대학』을 저본으로 하면서 차서를 개정하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崔有海(默守堂: 1587~1641), 沈大允(白雲: 1806~1872) 등이 있다. 넷째, 『고본대학』의 차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논리적 타당성을 밝히려고 노력한 경우로, 대표적인 학자로 尹鑄(白湖: 1617~1680), 鄭齊斗(霞谷: 1649~1736), 李秉休(貞山: 1710~1776), 丁若鏞(茶山: 1762~1836), 金澤榮(滄江: 1850~1927) 등이 있다.⁷⁾

이러한 상황과 함께 《大學》의 三綱領 八條目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왔다. 그 가운데에서 이들의 관계와 해석에 비교적 명확한 견해를 드러낸 대표적인 경우로 朱熹, 朴世堂, 鄭齊斗, 丁若鏞 등을 들 수 있다.

1. 朱熹의 견해

朱熹는 程子の 견해를 바탕으로 《大學》을 大人의 학문으로 여기고, 특별히 修己治人을 위한 初學入德之門이라고 하였다.⁸⁾ 아울러 明明德, 新民,⁹⁾ 止於至善을 《大學》의 삼강령으로 규정하고, 세번째 강령인 止於至善을 明明德과 新民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로 간주하였다.

明明德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품성으로, 허령하여 어둡지 않아 온

7) 김유근, 한국 유학의 『大學』 체제에 대한 이해(1) 166쪽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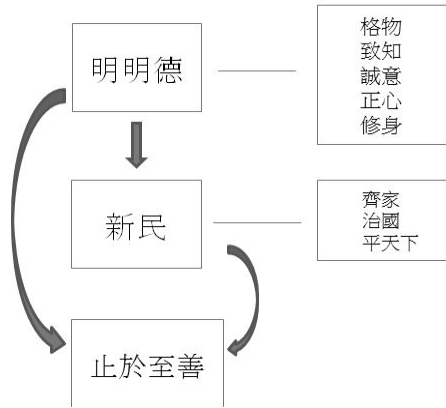
8) 子程子曰: 「大學, 孔氏之遺書, 而初學入德之門也。」 ○ 大學者, 大人之學也. (《大學章句》)

9) 원래는 親民이다. 주희는 ‘親’은 마땅히 ‘新’이어야 한다고 하였다.(程子曰: 「親, 當作新,」 《大學章句》)

갖 이치를 갖추어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 다만 기품과 인욕에 의해 구속되고 가려져 혼미해졌다. 그러나 그 본체의 밝음은 일찍이 켜진 적이 없으니, 학자들은 마땅히 그 밝히는 바에 따라 그것을 밝혀 최초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하다(新)’는 것은 낡은 것을 뒤엎는다는 말로서, 이미 스스로 明德을 밝혔으니 또다시 미루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그들 또한 오래전에 물든 더러움을 없애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치다(止)’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에 이르러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至善’이란 事理가 마땅히 그렇게 되는 극치의 상태이다. ‘明明德’과 ‘新民’은 모두 마땅히 至善의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옮기지 않는 것이다.(《大學章句》)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然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 以復其初也. 新者, 革其舊之謂也, 言既自明其明德, 又當推以及人, 使之亦有以去其舊染之汚也. 止者, 必至於是不遷之意. 至善, 則事理當然之極也. 言明明德 新民, 皆當至於至善之地而不遷. (《大學章句》)

아울러 주희는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脩其身; 欲脩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의 여덟 항목을 八條目으로 명명하고, 이 가운데에서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을 明明德에 관한 일로, 齊家 治國 平天下를 新民에 관한 일로 규정하였다.¹⁰⁾ 또한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을 모두 修身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희의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여 삼강령과 팔조목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도표 1>과



<도표 1> 朱熹의 三綱八目 推論圖

10) 脩身以上, 明明德之事也. 齊家以下, 新民之事也.(《大學章句》)

같다.

주희는 親民을 新民으로 여긴 것 외에도, 경문에 착간이 있었다고 여겨 《大學》의 일부 내용과 차서를 개정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 그것들은 일일이 다루지 않는다.

2. 朴世堂의 견해

朴世堂(1629~1703)은 호가 西溪, 潛叟이며, 조선 인조, 숙종 년간의 학자로, 주자학에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大學》 관련 저술로 『思辨錄』에 〈大學〉, 〈大學章句識疑〉를 남겼다.¹¹⁾ 그는 주희의 《大學章句》를 기본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三綱領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¹²⁾

지선에 그치는 데 있다는 것은, 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모두 반드시 지선에 이르기를 구한 뒤에야 그친다는 것을 말한다.

在止於至善, 言明德新民, 皆必求至於至善然後乃已. (思辨錄(I) / 大學 / 經一章)

○주(註)¹³⁾에 명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지선에 그치는 것의 세 가지를 《大學》 한 책의 강령(綱領)으로 삼았으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명덕을 밝히는 것이 한 가지 일이 되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 되며, 지선에 그치는 것이 또 따로 한 가지 일이 된다. 지금 명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미 각기 한 가지 일이 되었는데, 지선에 그치는 것이 또 따로 한 가지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주에, “명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모두 마땅히 지선에 그쳐야만 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명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

11) 고전번역서 > 사변록 > 사변록(I) / 대학(大學) > [경(經)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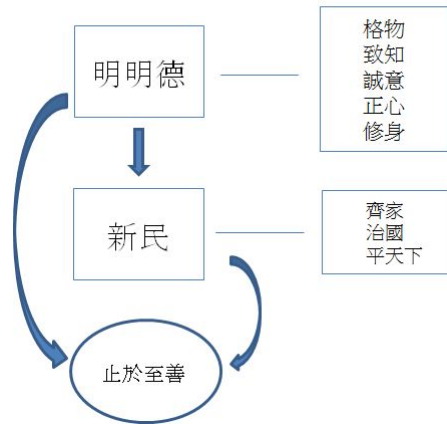
12) 朴世堂, 思辨錄 > 大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인용.(번역문 포함)

13) 《大學章句》의 集註를 말한다.

는 것을 버리고는 이른바 따로 지선이란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령이 있으면 반드시 조목이 있게 마련이니, 조목도 없으면서 홀로 그 강령만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강령은 여러 조목을 맺는 것이니, 조목이 있지 않는데 강령만 어찌 설치되겠는가. 그러므로 이 책에 명덕을 밝히는 조목이 다섯이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조목이 셋이 있으나, 지선에 그치는 조목은 마침내 찾아볼 수 없으니, 이로써 이 책의 강령이 둘뿐인 것을 알겠다. 지선에 그치는 것은 곧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공효(功效)를 이루는 것이니, 그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하나의 강령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명백하다.

○註以明德新民至善三者，爲一書之綱領，誠如此是明德爲一事，新民爲一事，至善又自爲一事，今明德新民既各自爲一事矣，至善又可得自爲一事乎，註言明德新民皆當止於至善，然則捨明德新民而更無所謂一段至善者，可見，且有綱必有目，未有無其目而獨有其綱，綱所以挈衆目，目既不存，綱安所設，故此書爲明德之目五，爲新民之目三，而及求其爲止至善之目者，則終不可以得，以此知此書之爲綱者二而已，若夫止至善，乃所以致明德新民之功，則其不可離之，使別爲一綱領明矣。

박세당은 《大學章句》의 親新改字說과, 明明德 및 新민의 ‘當皆止於至善’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였으나, 條目 없는 綱領이라는 止於至善은 明明德과 新민의 功效가 될 뿐, 强령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면 박세당의 삼강령 팔조목에 대한 대응관계는 <도표 2>와 같이 그려질 수 있다.



<도표 2> 박세당의 三綱八目 推論圖

3. 鄭齊斗의 견해

霞谷 鄭齊斗(1649~1736)의 자는 士仰이며 延日 정씨이다. 圃隱 정몽주의 11세 손이자, 조선 숙종·영조대의 巨儒로, 우리나라 陽明學의 대성자이다. 생전에 양명학 관계로 師友 문인들과 교환한 서신과 저술들이 많았으나, 주자학의 官學的 통제로 인하여 그 저술들이 필사본으로 私藏되어 전해오면서 사회에 공개되지 못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의 학설·사상은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¹⁴⁾

鄭齊斗의 《大學》 관련 저술에는 《霞谷集》에 〈大學說〉(卷十三)과 〈經學集錄〉(卷十七)이 있다. 鄭齊斗는 三綱領과 八條目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¹⁵⁾

덕을 밝힘은 그 근본이요, 백성을 친함은 그 끝이요, 지선은 그 체(體)이니, 이것은 밝히고 친하는 일이 그칠 곳이다. 친(親)은 본자대로 따른다.

明德其本。親民其末。至善則其體也。是明之親之之所止也。親從本字。

대개 격물치지는 지선의 요건(要件)이 되는 것이요 성의 이하는 명명덕을 말하는 것이요, 본(本)을 세우는 것, 제가 이하는 친민을 말하는 것이다.

蓋格物致知。爲至善之要。誠意以下。明明德之謂也。本之所立，齊家以下。親民之謂也。

위는 첫 장(章)으로서 입언(立言)의 첫머리가 된다. 삼강(三綱)·팔목(八目)을 설(設)하여 선에 그치고[止善] 덕을 밝힘[明德]으로써 그 대강을 삼아서 지지(知至)·물격(物格)의 방법을 나타내었다. 명덕이 날이 되고 지선이 씨가 된다. 두 절(節) 가운데서 또 지선에 그침[止至善]을 주로 하여 격물·치지의 지표(指)로 삼았다. 삼강(三綱)이란 팔 조목의 전체요 전체 가운데서 또 종합하여 본체가 되니 지선이 이것이다. 격물·치지는 실상 본체의 공부이다. 격물치지는, 즉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조목이다. 그러면 세 강령이 하나의 ‘지어지선’일 따름이요 여덟 조목이 하나의 격물치지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장(章) 첫머리에서 지선의 설(說)을 자주하여 여덟 조목을

14) 이상은, 〈霞谷集 解題〉(한국고전종합DB) 해제 > 고전번역서 > 하국집

15) 한국고전종합DB > 霞谷集 > 四書說 > 大學說

통틀어 격치(格致) 공부에 두고, 위로는 지지(知止)·능득(能得)으로써 이어 받고 아래로는 물격·지지(知至)로써 펼치고 끝에 가서 “이것이 본을 아는 것이며, 이것이 지(知)의 이름이다.”란 말로 맺었다. 그 상하의 예(例)와 수말(首末)의 뜻이 이 두 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지선에 그침을 주로 하여 격물치지의 지표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右首章。爲立言之首。設之以三綱八目。而以止善明德爲其大綱。以著知致物格之方焉。明德爲經而至善緯之。二節之中。又主於止至善而爲格物致知之指。三綱者八條之全體。全體之中又總之爲本體則至善是也。而格物致知。實爲本體工夫。格物致知者。卽止於至善之目也。然則三綱一止於至善而已。八目一格物致知而已。故章首惟勤至善之說。八條統在格致之功。上以知止能得承之。下以物格知至申焉。而末以此謂知本此謂知之至結之。其上下之爲例。首末之指趣。不外乎此二節而主於止至善。爲格物致知之指者可知矣。

여덟 가지는 지선과 명덕의 조목이니 이것은 大學의 경(經)이다. 수신 이상은 명덕을 밝히는 일이고, 제가 이하는 백성을 친하는 일이다. 격물·치지는 또 지선에 그치는 공부가 되니 곧 첫머리에서 포함한 경과 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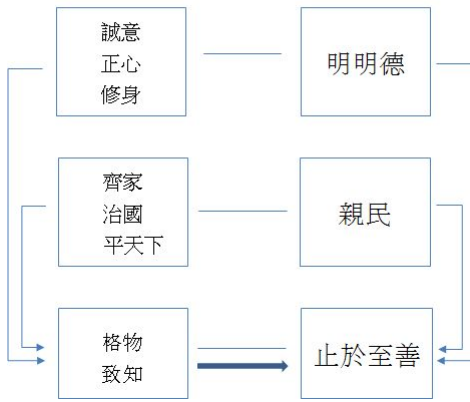
八者至善明德之條目。此大學之經也。修身以上。明明德之事。齊家以下。親民之事。格物致知則又爲止至善之工夫。卽首包經緯。(大學3)

친하·국·가는 친민의 조목이고, 수신·정심·성의를 명덕의 조목이고, 치지 격물은 또 그 지선의 조목이다. 통틀어 보면, 여덟 가지가 다 지선으로 돌아갈 따름이다.

天下國家者。其親民之目也。修身正誠者。其明德之目也。致知格物者。卽又其至善之目也。而總之八者。又皆歸於至善而已。(大學說)

鄭齊斗는 誠意 正心 修身은 明明德의 조목이고, 齊家 治國 平天下는 親民의 조목이며, 格物 致知는 또 止於至善의 조목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삼강령은 팔조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止於至善은 강령 중의 강령으로 삼강령의 宗旨라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팔조목을 經으로 여기고, 이 팔조목은 다 至善으로 귀착된다고 하여, 至善이 大學의 삼강령과 팔조목의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鄭齊斗의 삼강령 팔조목의 대응관계는 <도표 3>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鄭齊斗는 삼강령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가



〈도표 3〉 鄭齊斗의 三綱八目 推論圖

明明德과 親民에 대응시킨 팔조목의 내용과 止於至善을 삼강령의 종지이자 강령중의 강령으로 한 것으로 보아,明明德과 親民은 止於至善의 이전 단계로 인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格物致知를 止於至善의 조목으로 제시한 것은, 삼강령의 종지로서 격물치지를 至善의 상태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는 좀 더 깊이 고려해보아야 할 일이다.

4. 丁若鏞의 견해

丁若鏞(1762~1836)은 字가 美鏞, 號가 茶山·與猶堂으로, 정조(正祖) 연간의 문신이다.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선진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성리학적 사상체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大學》에 대한 전문적인 저술로 〈大學公議〉를 편찬하였다.¹⁶⁾ 정약용은 《大學》의 三綱領을 인정하였지만, 八條目에 대해서는 매우 독특한 견해를 보였다. 먼저 그는 삼강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明德’은 ‘孝, 弟, 慈’이다. ... 이른 바 明德이라는 것은 孝弟慈이고, 新民이라는 것도 또한 孝弟慈이다. 明明德이라는 것은 人倫을 밝힌다는 것이다.

○王陽明은 親자는 틀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의는 말한다. 明德이 이미 孝弟慈라면, 親民 또한 新民이 아니다. ... 明明德은 人倫을 밝힌다는 것이다. 親民이란 小民을 친애하는 것이다.

16) 《與猶堂全書》에 전한다.

그치다(止)는 것은 이르러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至善이란 人倫의 至德이다. 참됨이 곧 지극함이다. ○ 공의는 말한다. 至善에 머무른다는 것은 자식이 되어서는 孝에 머무르고, 신하가 되어서는 敬에 머무르고, 나라사 람들과 사귀에는 信에 머무르고, 아버지가 되어서는 慈에 머무르고, 임금이 되어서는 仁에 머무른다는 것을 뜻한다. 무릇 人倫 외에 至善이란 없다.

총괄하면, 大學의 三綱領은 모두 人倫을 말하는 것이다.

明德也, 孝弟慈. ... 所謂明德, 孝弟慈也, 所謂新民, 亦孝弟慈也. ... 明明德者. 明人倫也.

○王陽明曰親字不誤. ○議曰明德既爲孝弟慈. 則親民亦非新民也. ... 明明德者. 明人倫也. 親民者. 親小民也.

止者. 至而不遷也. 至善者. 人倫之至德也. 誠則至. ○議曰止於至善者. 爲人子止於孝. 爲人臣止於敬. 與國人交止於信. 爲人父止於慈. 爲人君止於仁. 凡人倫之外. 無至善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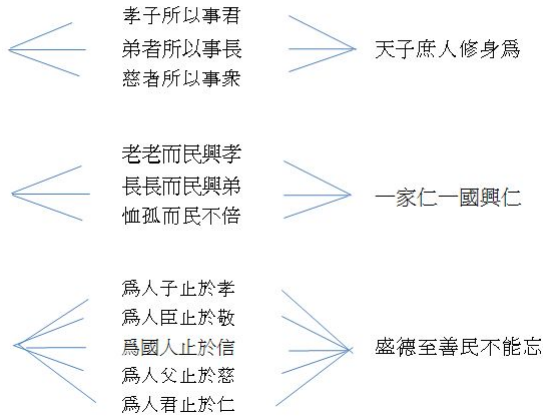
總之大學之三綱領. 皆人倫之說. (大學公議一)□

○公議는 말한다. 大學에는 三綱領이 있다. 三綱領은 각각 三條目을 이 끄는데, 모두가 孝弟慈이다. (그림 참조). 此節은 明德, 新民의 條目이 아니다. 그러나 글은 비록 여덟 차례 전개되었지만, 일(事)은 오직 六條일 뿐이다. 格物, 致知는 마땅히 수가 팔이 되는 것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格致와 六條라고 하겠다. (大學公議二)□

○議曰大學有三綱領. 三綱領. 各領三條目. 皆是孝弟慈. 見上圖 此節非明德新民之條目也. 然且文雖八轉. 事惟六條. 格物致知. 不當并數之爲八. 名之曰格致六條. (大學公議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약용은 《大學》의 삼강령에는 각각 孝·弟·慈라는 三條目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明明德이란 孝·弟·慈를 자신이 실천하는 것이고, 親民이란 자신의 孝·弟·慈 실천을 통해 백성들도 孝·弟·慈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며, 止於至善이란 孝·弟·慈의 인륜이 자신과 백성들 모두에게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⁷⁾ 정약용은 직접 자신의 《大學》의 三綱領三條目說을 <도표 4>의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17) 김유근,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2) (28쪽) 인용.



〈도표 4〉 鄭若鏞의 三綱領三條目說

Ⅲ. ‘大學’의 이해와 三綱領 八條目的 대응관계

《禮記·大學》의 ‘大學’은 ‘小學’의 상대적인 말로서, 큰 학문이란 뜻이다. 이른 바 ‘小學’이 인간사회의 윤리도덕과 기본상식을 주내용으로 하였다면, ‘大學’은 儒家가 추구한 인간사회의 이상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통치 방법 제시라는 보다 상위적인 개념의 학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學’은 학궁의 이름이라기보다 학문의 성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이는 것이다.¹⁸⁾ 왜냐하면, 《禮記》의 편명으로서의 〈大學〉이 ‘태학’으로서 학궁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글 내용에는 필연코 그에 대한 정의나, 학제, 체계, 운영 등 보다 외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學》의 내용은 결코 그런 것을

18) 정약용은 ‘大學’을 학궁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議曰舊音大讀爲泰。今人如字讀。非也。(《大學公議》一)
 上曰小學大學。是學宮之名耶。抑學問之名耶。臣對曰小學大學之所以分。雖由學問體用之大小。而序亦云幾歲入小學。幾歲入大學。則此是學宮之名也。(《大學講義·熙政堂大學講義》)

염두에 두지 않았다. 《大學》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한 修身治國 방법론과 平天下의 면모일 뿐이다. 아래에 《大學》의 三綱領과 八條目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1. 三綱領의 이해

《大學》의 핵심 주제는 三綱領으로 말해지는 明明德, 親民¹⁹⁾, 止於至善이다. 이는 바로 儒家가 꿈꾸던 이상세계를 이룩하는 단계적 절차와 방법론으로,²⁰⁾ 明明德을 바탕으로 親民을 이루고, 다시 親民을 바탕으로 止於至善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至善의 경지란 국가통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平天下’이다.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은 바로 《大學》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곧 방법론을 제시한 강령이며, 이 삼강령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른 바 平天下 이하의 治國, 齊家, 修身, 正心, 誠意, 致知, 格物 등 八條目を 제시하였다. 이 三綱領과 八條目は 《大學》 내용의 근간이며 전부이다. 이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大學》에 담겨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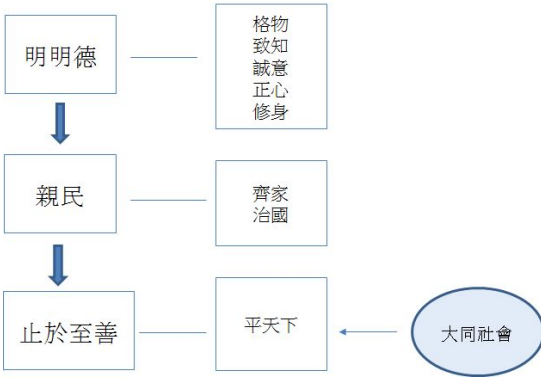
三綱領에서, 明明德은 格物致知에서부터 인격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의 修身을 말하고, 親民은 明明德을 바탕으로 한 齊家治國을 말하며, 止於至善은 다시 明明德과 親民을 바탕으로 한 이상세계의 최종단계인 平天下를 말한다. 따라서 八條目 가운데에서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은 明明德의 일이고, 齊家 治國은 親民의 일이며, 平天下는 곧 《大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止於至善의 상태이다. 平天下는 천하를 평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태평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그것은 곧 儒家가 지향하는 理想世界인 大同社會²¹⁾이며, 孟子가 말한 이른 바 ‘天下惡乎定?’에 대

19) 글자대로 해석하며, ‘新民’으로 여기지 않는다.

20) 이세동은 “《禮記·大學》은 原始儒家의 원대한 이상을 절박하게 서술한 글이다.”라고 하였다. (이세동, 앞의 논문, 199쪽)

21) 《禮記·禮運第九》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 대답인 ‘定于—.’의 상태이다. ‘定于—’이란 천하가 하나로 통합되어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을 받는 일이 없고, 道가 존재하여 모든 사람들이 ‘養生喪死’할 수 있는 태평스러운 인간사회를 말한다. 당연히 그 과정은 무력과 전쟁이 아닌 仁政에 의하며, 천하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여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하나의 나라가 되는, 바로 당시 儒家가 꿈꾸던 인류 사회의 理想世界이다.²²⁾ 부연하면, 《大學》의 三綱領과 八條目은 바로



〈도표 5〉 大學의 三綱領八條目 關係圖

위의 그림은 三綱領의 이행과정인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강령은 또한 그에 상응하는 條目을 갖는다

이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며, 당시 국가통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교육내용이었다. 이제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大學》의 三綱領과 八條目的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도표 5〉와 같다.

昔者仲尼與於蜡賓，事畢，出遊於觀之上，喟然而嘆。仲尼之嘆蓋嘆魯也。言偃在側，曰，“君子何嘆？”孔子曰，“大道之行也，與三代之英丘未之逮也，而有志焉。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修睦。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使老有所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爲己。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

22) 《孟子》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孟子見梁襄王。出語人曰：「望之不似人君，就之而不見所畏焉。卒然問曰：『天下惡乎定？』吾對曰：『定于—。』』孰能一之？』對曰：『不嗜殺人者能一之。』『孰能與之？』對曰：『天下莫不與也。王知夫苗乎？七八月之間旱，則苗槁矣。天油然作雲，沛然下雨，則苗浡然興之矣。其如是，孰能禦之？今夫天下之人牧，未有不嗜殺人者也，如有不嗜殺人者，則天下之民皆引領而望之矣。誠如是也，民歸之，由水之就下，沛然誰能禦之？』(《孟子·梁惠王上·》)

는 것이다.²³⁾ 삼강령의 최종 단계인 止於至善은 바로 八條目の 최종 단계인 平天下를 말하니, 이는 바로 《大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요, 곧 儒家가 꿈꾸던 大同社會라는 ‘天下太平’의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앞에서 박세당이 지적한 朱熹 해석이 갖는 두 가지 불합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 즉, 하나는 ‘주(註)에, “명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모두 마땅히 지선에 그쳐야만 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명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버리고는 이른바 따로 지선이란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강령이 있으면 반드시 조목이 있게 마련이니, 조목도 없으면서 홀로 그 강령만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강령은 여러 조목을 맺는 것이니, 조목이 있지 않은데 강령만 어찌 설치되겠는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朴世堂은 결국에는 ‘그러므로 이 책에 명덕을 밝히는 조목이 다섯이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조목이 셋이 있으나, 지선에 그치는 조목은 마침내 찾아볼 수 없으니, 이로써 이 책의 강령이 둘뿐인 것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대학의 삼강령을 공역지책으로 二綱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²⁴⁾ 박세당의 이러한 토로는 결국 朱熹의 견해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당시 사회의 사상적 사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겠다.

2. 八條目の 이해

八條目は 《大學》의 三綱領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세목이다. 《大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3) 朴世堂은 “강령이 있으면 반드시 조목이 있게 마련이니, 조목도 없으면서 홀로 그 강령만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且有綱必有目, 未有無其目而獨有其綱.)”고 하였다. 朴世堂, 思辨錄 > 大學 (韓國經學資料集成 大學),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24) 思辨錄(1) / 大學 / 經一章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脩其身；欲脩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誠其意；欲誠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

物格而后知至，知至而后意誠，意誠而后心正，心正而后身脩，身脩而后家齊，家齊而后國治，國治而后天下平。

이 글은 《大學》의 八條目を 제시한 부분이다. 八條目이란, 앞에서 언급한,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를 말하며, 이들은 각기 三綱領을 실현하는 구체적 조목으로 삼강령과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大學》에서는 각각의 조목을 능동형과 완성형으로 거듭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物格 知至 意誠 心正 身脩 家齊 國治 天下平은 완성형으로서 八條目の 순차적인 진행 단계를 말하고, 흔히 말하는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는 각각의 세목을 수행해가는 과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인 이행 순서를 말한다. 위의 글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조목인 ‘天下平’에 대한 능동형이 ‘明明德於天下’로 명시되었다는 점과, ‘致知’의 완성형이 ‘知致’가 아닌 ‘知至’로 명기되었다는 점이다.

(1) 平天下와 明德의 이해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으로부터 우리는 ‘明明德於天下’는 곧 八條目 ‘平天下’의 다른 표현이며, 이는 바로 ‘平天下’에 대한 《大學》 자체의 해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平天下’란 결국 ‘천하에 명덕을 밝히는 것(明明德於天下)’이고, ‘명덕을 밝힌다’(明明德)는 것은 곧 인륜과 인의가 밝아 도덕질서는 물론 정의가 바로 서는 공명정대함을 구현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明德’이란 內聖外王이 되기 위한, 주희가 말한 “하늘로부터 얻은 것으로, 허령하여 어둡지 않아 못 이치를 갖추어 모든 일에 응하는 것[虛靈不昧 具衆理 應萬事]”²⁵⁾이라기보다, 오히

25) 明德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大學章句》)

려 인륜도덕의 핵심을 이룬다는 정약용의 ‘明德은 孝弟慈이고, 明明德은 人倫을 밝히는 것’이라는 견해²⁶⁾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天下平’란 곧 천하가 태평스럽다는 뜻으로, 온 세상에 더 이상의 전쟁이나 침략 같은 야만적인 일이 없고, 생활에 여유가 넘쳐 인륜과 도덕이 바로 선 仁義로 충만한 ‘治國’의 다음 단계에서 실현되는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孟子는 仁義에 의한 王道政治를 행하여 최상의 ‘治國’ 상태를 이룬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목을 빼고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이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하 여.”²⁷⁾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天下平’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明明德의 구체적인 의미는 인륜을 밝힌다는 정약용의 ‘明人倫’ 설이 더욱 타당하며, 《大學》 또한 치자의 수양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인륜이 밝은 문명사회를 이룸으로써 인류가 꿈꾸던 이상세계를 이루려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朱熹가 주창한 修己治人の 상태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이상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大學》의 취지는 동일한 개념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2) 致知와 知至의 이해

八條目的의 ‘致知’에 대한 완성형의 표현이 ‘知至’로 명기된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팔조목 중 여섯 조목이 능동형과 완성형의 글자가 같음에 반하여, 오직 ‘平天下’와 함께 ‘致知’에 대한 ‘知至’만이 두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致知와 格物에 대하여 주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致는 극대함이다. 知는 아는 것이다. 나의 지식을 극대화하여 아는 바를 다하지 않음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格은 이르다(至)이다. 物은 일(事)과

26) 明德也, 孝弟慈. ... 明明德者, 明人倫也. (《大學公議》)

27) 天下之民皆引領而望之矣. 誠如是也, 民歸之, 由水之就下, 沛然誰能禦之.(《孟子·梁惠王上》)

같다. 窮至事物의 이치에 끝까지 이르러 극단의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致, 推極也. 知, 猶識也. 推極吾之知識, 欲其所知無不盡也. 格, 至也. 物, 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

知至라는 것은 내 마음의 아는 바가 다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앎이 다해지면 뜻이 성실해질 수 있게 된다.

知至者, 吾心之所知無不盡也. 知既盡, 則意可得而實矣.²⁸⁾

주희는 ‘致’와 ‘至’를 각각 ‘극대화하다(推極)’와 ‘끝까지 이르다(無不盡)’로 풀이하여 모두 ‘지극히 하다’는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致知’와 ‘知至’의 형태를 보면, 결국 致知의 致는 至와 같으며, 이는 각각 능동형과 완성형으로 글자를 달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의 일상적인 문자생활에서 ‘至’가 단독 술어로 사용되어 ‘지극하다(至極)’나 ‘지대하다(至大)’는 뜻으로 쓰인 경우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知至’의 ‘至’를 쉬이 ‘無不盡’(극진히 하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致’²⁹⁾와 ‘至’는 결국 이들의 공통적인 의미와 앎(知)의 정체성에 대한 논리성을 고려하여 ‘이루다’와 ‘이르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옳겠다. 格物致知란 사물을 탐구하여 그 이치를 깨치는 것으로, 이치란 깨쳐지는 순간 알게 되는 것일 뿐, 지극히 깨치거나 극진하게 깨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知至란 곧 ‘앎이 이루어지다 또는 앎이 이르다’는 뜻이다. 결국 致知란 앎을 이루는 것이요, 格物이란 사물을 깨치는 것으로, 格物致知란 바로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여 앎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⁰⁾

28) 《大學章句》

29) 문자적인 의미로도 ‘致’는 ‘이루다’는 뜻이지, ‘쌓다’는 뜻이 아니다.

30) 鄭齊斗 또한 이러한 견해를 보였다.

致知在格物, 致, 至也, 知者, 心之本體, 卽至善之發也, 格, 正也, 物者, 事也, 卽意所在之事也. (鄭齊斗, 菴谷集 (22冊本), 권13, 〈大學(2)〉)

(3) 格物致知之 ‘傳’에 대한 이해

《大學》의 원문에 착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格物致知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³¹⁾ 그러나 《禮記·大學》을 면밀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다.³²⁾ 먼저 아래에 그 원문을 보인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脩其身; 欲脩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脩, 身脩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脩身爲本.

其本亂而未治者否矣, 其所厚者薄,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

朱熹는 위의 인용문에서 마지막 부분 “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經一章으로 규정하고, 이를 三綱領과 八條目을 제시한 統論으로 여겼다. 아울러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의 이 구절을 특별히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과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의 뜻을 맺는 結語라고 하였다.³³⁾ 그리고는 “此謂知之至也.” 앞에 格物致知에 대한 글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이른 바 “格物致知補亡章”을 지어 넣어 《大學章句》를 편찬하였다.³⁴⁾ 그러나 《大學》의 원전에 格物致知에 대한 내용

31) 右傳之五章, 蓋釋格物 致知之義, 而今亡矣. (《大學章句》)

32) 이에 대해서는 이세동이 이미 그 개관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술의 주관점이 달라 별도로 기술을 진행한다. (이세동, 앞의 글, 198쪽)

33) 此結上文兩節之意. (《大學章句》)

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견해 또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위의 인용문 가운데 삼강령을 명시한 “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격물치지에 대한 설명으로 여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글은 특별히 儒家가 제시하는 지식습득 과정과 요체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주희가 《大學》의 편차를 고쳐가면서까지 정립하고자 그토록 갈구했던 불교의 인식론에 대항할 유가의 사물인식론이자 격물치지의 요체인 것이다.

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靜，靜而后能安，安而后能慮，慮而后能得。
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

이 글은 《大學》의 八條目에서 格物致知의 방법론을 밝힌 것으로, 綱領으로는 明明德에 속한다. “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靜，靜而后能安，安而后能慮，慮而后能得。”은 바로 자기계발의 첫단계로 지식이 어떻게 습득되는지에 관한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글로서, 이른바 儒家의 認知論이자 功夫論이다. 지식은, 알다시피, 끊임없는 공부³⁵⁾에 의해 체득되며, 공부는 몇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공부의 대상에 대한 집중이다. 이것이 ‘知止’이다. ‘止(머물다)’란 공부의 대상에 머무를 말하니, 이는 곧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단 공부의 대상을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며, 그러면 고요하고 편안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 결국에는 추구하려고 했던 결과, 즉 사물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곧 ‘知止’는 인지 과정의 출발이고 ‘能得’은 인지과정 곧 공부의 결말로서, 이는 바로 ‘格物致知’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格物致知를 해야 할 요체로 ‘物有本末，事有終始’를 제시

34) 此謂知本，程子曰：「衍文也。」此謂知之至也。此句之上別有關文，此特其結語耳。右傳之五章，蓋釋格物 致知之義，而今亡矣。開嘗竊取程子之意以補之，曰：“……”(《大學章句》)

35) 추리, 관찰, 탐구 등 넓은 개념의 학습을 말한다.

하고, 物과 事에는 이른 바 本末과 終始가 있으니, 이를 잘 헤아려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뜻한 바의 목표에 도달하여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其本亂而末治者否矣, 其所厚者薄,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를 제시한 것은 格物致知에 있어서 八條目の 終始先后와 함께 本末厚薄의 요체를 아는 것이 ‘知本’의 핵심임을 매조진 것이다.

그러나 ‘知止’의 ‘止’에 대하여 주희는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으로, 바로 至善의 소재지”라고 하였고,³⁶⁾ 공영달 또한 “止於至善’의 일을 다시 되풀이하여 말한 것”이라고 하였지만,³⁷⁾ 그러나 ‘止於至善’은 ‘明明德’, ‘親民’ 이후에 일어나는 최선이자 최종적인 경지라고 한다면, 이는 결코 格致의 첫단계에서 일어나는 ‘知止’의 ‘止’의 대상은 아니다. 말하자면, 주희는 格物を 하기도 전에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至善의 경지에 머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니, 이는 논리상으로나 정리상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知止’의 ‘止’가 ‘至善之所在’가 될 수 없다는 견해는 巖棲 曹兢燮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이미 “지(止)’는 지선(至善)이 있는 곳이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知止는 곧 지선이 있는 곳을 아는 것이 된다. 능히 지선이 있는 곳을 아는 것은 格물치지(格物致知)의 공부가 이미 그 지극함을 다한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사람 마음의 신령함이 알지 못함이 없다고 하여, 시비를 변별하는 크고 거친 것을 이에 해당시킬 수 있겠는가.

既曰止者至善之所在。則知止者即知至善之所在也。能知至善之所在者。非格物致知之功已極其至者不能。安得以人心之靈莫不有知。而辨別是非之大故齷畧者當之也耶。³⁸⁾

36) 止者, 所當止之地, 卽至善之所在也. 知之, 則志有定向. (《大學章句》) 이언적 또한 이러한 견해를 보였다.(『大學章句補遺』: 知止者, 物格知至, 而於天下之事, 皆有以知其至善之所在也. (김유곤,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1) 188쪽)

37) 《禮記正義》 孔疏 ○‘知止而后有定’者, 更覆說止於至善之事. 既知止於至善, 而后心能有定, 不有差貳也.

曹兢燮 또한 ‘知至善之所在’라는 것은 格物致知的 공부에 지극한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知止’의 ‘止’는 단계적이나 논리적으로 결코 ‘至善之所在’가 될 수 없으며, 또한 ‘知止於至善’과 동의적인 개념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희나 회재의 해석은 지나치게 과장한 측면이 있다. 정약용은 이를 治國의 일과 관련시켜 특별히 “인륜과 성덕이 극진한 곳”³⁹⁾이라고 하였지만, 또 알아야 할 대상에 머물[知止]이 어찌 여기에만 그치겠는가.

‘知止而后有定’은 바로 格物致知的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기의 ‘知止’는 앎을 이루는 첫단계로서 ‘주목하다’는 뜻이며, 格物致知라는 전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자세히 보면, 여기의 ‘止’는 지식을 쌓는 첫단계에서 그 지식이 존재하는 대상을 마주하는 상황이어야 할 뿐이다. 그 추구하고자 하는 지식이 국가통치를 위한 소양이라면 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일이나 경험일 수 있고, 개인수양을 위한 것이라면 도덕 인성일 수 있으며, 삼라만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라면 각 사물의 이치일 수 있다.

格物致知的 대상은 삼라만상과 인간생활, 국가경영에 필요한 사물에서부터 治國과 平天下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공부와 그 범위를 포괄할 것이나, 특별히 《大學》에서는 그 범위를 국가경영과 관련하여 지식의 인지이론과 八條目, 그리고 本末終始 및 先后厚朴을 그 요체로 명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격물치지에 관한 내용이 《大學》의 글 첫머리 三綱領 이후부터 誠意의 앞부분 사이에 놓인 까닭이다.

(4) ‘治國平天下’의 해석에 대한 이해

《大學》의 八條目 해석과 관련하여 마지막 장에는 흔히 ‘治國平天下’를 함께 설명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治國’만을 말하고,

38) 한국문집총간 > 巖棲集(曹兢燮) > 巖棲先生文集卷之十七 > 雜著 > 讀滄江金氏古本大學章句

39) 大學公議二, 知止。謂知人倫成德之所極。知此而后志有定向。

‘平天下’에 대한 설명은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平天下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되고 마니, 여전히 治國平天下를 함께 설명한 것으로 여기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平天下는 治國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이니, 굳이 설명이 필요할 까닭이 없다. 말하자면, ‘平天下’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면,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방법과 과정이 다 이루어져서 잘 살게 된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八條目の 平天下 조목은 바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마지막 부분인 것이다.⁴⁰⁾ 따라서 《大學》의 마지막 편장은 ‘治國平天下’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治國’을 해석한 것일 뿐이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大學》의 편차와 三綱領 八條目の 상관관계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大學正義》⁴¹⁾의 체제 구성〉

總論	大學之道，在明明德，在亲民，在止於至善。	綱領
格物致知	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静，静而后能安，安而后能虑，虑而后能得。物有本末，事有终始，知所先后，则近道矣。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国。欲治其国者，先齐其家。欲齐其家者，先脩其身。欲脩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诚其意。欲诚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物格而后知至，知至而后意诚，意诚而后心正，心正而后身脩，身脩而后家齐，家齐而后国治，国治而后天下平。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脩身为本，其本乱而未治者否矣。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未之有也。此谓知本，此谓知之至也。	明明德

40) 박세당도 이러한 견해를 보인다. (김유곤,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1) 186쪽 참조)

41) 《禮記正義》에 실려 있는 〈大學〉을 말한다. 흔히 〈古本大學〉이라고 한 것으로, 〈大學章句〉와 차서를 달리한다.

誠意	<p>所謂誠其意者，毋自欺也，如惡惡臭，如好好色，此之謂自謙。故君子必慎其獨也。小人閒居為不善，無所不至，見君子而後厭然，揜其不善，而著其善。人之視己，如見其肺肝，然則何益矣？此謂誠於中形於外，故君子必慎其獨也。曾子曰：“十目所視，十手所指，其嚴乎？”富潤屋，德潤身，心廣體胖，故君子必誠其意。</p> <p>《詩》云：“瞻彼淇澳，萋竹猗猗。有斐君子，如切如磋，如琢如磨。瑟兮僖兮，赫兮喧兮。有斐君子，終不可諠兮。”“如切如磋”者，道學也。“如琢如磨”者，自脩也。“瑟兮僖兮”者，恂栗也。“赫兮喧兮”者，威儀也。“有斐君子，終不可諠兮”者，道盛德至善，民之不能忘也。</p> <p>《詩》云：“於戲前王不忘。”君子賢其賢而親，其親小人樂其樂而利其利，此以沒世不忘也。</p> <p>《康誥》曰“克明德”，《大甲》曰“顧諟天之明命”，《帝典》曰“克明峻德”，皆自明也。</p> <p>湯之《盤銘》曰：“苟日新，日日新，又日新。”《康誥》曰：“作新民。”《詩》曰：“周雖旧邦，其命惟新。”是故君子無所不用其極。</p> <p>《詩》云：“邦畿千里，惟民所止。”《詩》云：“緡蠻黃鳥，止于丘隅。”子曰：“於止，知其所止，可以人而不如鳥乎？”</p> <p>《詩》云：“穆穆文王，於緝熙敬止。”為人君止於仁，為人臣止於敬，為人子止於孝，為人父止於慈，與國人交止於信。</p> <p>子曰：“听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無情者不得盡其辭，大畏民志。此謂知本</p>	明明德
正心	所謂修身在正其心者，身有所忿懣，……此謂修身在正其心。 ⁴²⁾	明明德
修身	所謂齊其家在修其身者，人之其所親愛而辟焉，……此謂身不修不可以齊其家。	明明德
齊家	所謂治國必先齊其家者，其家不可教而能教人者無之，……此謂治國在齊其家。	親民
治國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上老老而民興孝，……此謂國不以利為利，以義為利也。	親民
平天下	(대동사회)	止於至善

IV.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大學》이 갖는 고유 의미의 개관적인 이해를 위하여 三綱領과 八條目の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흔히 《大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朱熹가 편찬한 《大學章句》를 연상하지만, 이제는 ‘古本大學’이라고 하는 《禮記·大學》도 함께 떠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저 옛날 《大學》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 진면목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옛 성현들과의 대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의 ‘大學’은 ‘小學’의 상대적인 말로서, 큰 학문이란 뜻으로 해석한다. 이른 바 ‘小學’이 인간사회의 윤리도덕과 기본상식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면, ‘大學’은 儒家가 추구했던 인간사회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국가통치방법론이라는 보다 상위적인 개념의 학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大學》의 전체 내용을 개괄하면 오직 儒家의 이상세계 건설을 위한 修身治國의 방법론과 平天下의 면모일 뿐이다.

《大學》의 핵심 주제는 三綱領으로 말해지는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이다. 이는 바로 儒家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를 이룩하는 단계적 절차와 방법론으로, 明明德을 바탕으로 親民을 이루고, 다시 親民을 바탕으로 止於至善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至善의 경지란 국가통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平天下’이다.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은 바로 《大學》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곧 방법론을 제시한 강령이며, 이 삼강령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른 바 平天下 이하의 治國, 齊家, 修身, 正心, 誠意, 致知, 格物 등 八條目を 제시하였다. 三綱領과 八條目は 《大學》 내용의 근간이며 전부이다.

三綱領에서, 明明德은 格物致知에서부터 인격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42) 이 글 이하는 《禮記·大學》과 《大學章句》의 내용이 같으므로, 가운데 부분을 생략한다.

의 修身을 말하고, 親民은 明明德을 바탕으로 한 齊家治國을 말하며, 止於至善은 다시 明明德과 親民을 바탕으로 한 이상세계의 최종단계인 平天下를 말한다. 따라서 八條目 가운데에서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은 明明德의 일이고, 齊家 治國은 親民의 일이며, 平天下는 곧 《大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止於至善의 상태이다. 平天下는 천하를 태평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그것은 곧 儒家가 지향하는 理想世界인 大同社會이며, 孟子가 말한 이른 바 ‘天下惡乎定?’에 대한 대답인 ‘定于一.’의 상태이다. ‘定于一’이란 천하가 하나로 통합되어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을 받는 일이 없고, 道가 존재하여 모든 사람들이 ‘養生喪死’할 수 있는 태평스러운 인간사회를 말한다. 당연히 그 과정은 무력과 전쟁이 아닌 仁政에 의하며, 천하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여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하나가 되는,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인류사회의 理想世界이다. 《大學》의 三綱領과 八條目은 바로 이 인류가 꿈꾸던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자, 당시 국가통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핵심내용이었다.

《大學》의 전체 내용이 修身治國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것은 三綱領과 八條目を 통해 여실히 증명된다. 《大學章句》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견해는 修己治人の 관점에서 三綱領의 止於至善을 明明德과 新民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사실 止於至善은 三綱領의 단계적 최종 상태이자 八條目の 최종 단계인 平天下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大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儒家가 꿈꾸었던 大同社會라는 ‘天下太平’의 이상세계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三綱領과 八條目の 대응관계는 더욱 분명해지고, 《大學》의 전체 내용 또한 비로소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한 구절구절이 더욱 합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大學章句》의 편차 수정은 신유학파의 인식론 정립을 위한 한 방편이었으며, 그들은 이를 통해 성리학을 구축하려는 한 발판으로 삼았다. 따라서 《大學》은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탄생된 것이 이른 바 《大學章句》인 것이다. 이세동의 지적대로 《大學章句》의 註釋은 결코 《禮記·大學》의 本義는 아닌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大學》의 근간인 三綱領 八條目的의 대응관계를 통해 그 유기성과 주지를 이해하고, 한동안 원형을 떠나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던 《大學》을 이제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다. 기존의 견해가 한 시기를 풍미하고 더는 뒤바꿀 수 없는 현실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나래를 펴 《大學》이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그 원형의 모습을 구현하고,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유곤,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1) -『대학장구』와 『고본대학』의 체제를 개정한 학자를 중심으로->《儒教思想研究》 第43輯, 한국유교학회, 2011년, 165-198쪽.
2. 김유곤,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2) -고본대학口체제의 정합성을 인정하는 학자를 중심으로->《동양철학연구》 제66집, 동양철학연구회, 2011년, 7-40쪽.
3. 박성규,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大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호, 2004.
4. 이세동, 《大學·中庸》, 을유문화사, 2007.
5. 이세동, <朱子の 《大學》 改本에 대한 考察>, 《中國語文學》 第29輯, 영남중국어문학회 1997년, 181-202쪽.
6. 한학중, <《大學章句》의 誤字闕文說 고찰>, 《中國語文學》 第60輯, 영남중국어문학회 2012년, 395-421쪽.
7. 鄭氏注·孔穎達疏, 《禮記正義》([清]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出版, 1987.
8. 朱熹, 《大學集注》, 明文堂, 1987.

9.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鄭齊斗, 한국문집총간 > 霞谷集 > 四書說 > 大學說
 柳崇祖, 한국문집총간 > 大學三綱八目箴
 朴世堂, 고전원문 > 思辨錄 > 大學
 丁若鏞, 한국문집총간 > 與猶堂全書 > 大學公議
 丁若鏞, 한국문집총간 > 與猶堂全書 > 大學講義 > 熙政堂大學講義
 韓如愈, 한국문집총간 > 遁翁集 > 遁翁先生文集卷之二 > 雜著

< Abstract >

The main themes of The Great Learning are to illustrate illustrious virtue(明明德); to love the people(親民); and to rest in the highest excellence(止於至善). This is the step-by-step process and methodology for achieving the ideal world which Confucian School orients. The highest excellence's status means the whole kingdom was made tranquil and happy(平天下), as the ultimate goal of Confucian School's dream. Three-Doctrine(三綱領) : To illustrate illustrious virtue(明明德), to love the people(親民) and to rest in the highest excellence(止於至善) are the goal that The Great Learning, also are The process of reaching that goal. The Methodology exactly is Eight-Categories(八條目) : Things being investigated(格物), Their knowledge being complete(致知), Their thoughts being sincere(誠意), Their hearts being rectified(正心), Their persons being cultivated(修身), Their families being regulated(齊家), Their states being rightly governed(治國), The whole kingdom was made tranquil and happy(平天下). Three-Doctrine(三綱領) and Eight-Categories(八條目), this is the basis and the whole story of The Great Learning.

Among Three-Doctrine(三綱領), to illustrate illustrious virtue(明明德)

refers to Their persons being cultivated(修身) from Things being investigated(格物) and Their knowledge being complete(致知) to the completion of personality; to love the people(親民) refers to Their families being regulated(齊家) and Their states being rightly governed(治國) based onto illustrate illustrious virtue(明明德); and to rest in the highest excellence(止於至善) refers to the whole kingdom was made tranquil and happy(平天下), is the final stage of the ideal world based onto illustrate illustrious virtue(明明德) and to love the people(親民). Therefore, Things being investigated, Their knowledge being complete, Their thoughts being sincere, Their hearts being rectified and Their persons being cultivated are the contents of to illustrate illustrious virtue(明明德); Their families being regulated and Their states being rightly governed are the contents of to love the people(親民); the whole kingdom was made tranquil and happy(平天下) is the content of to rest in the highest excellence(止於至善). to rest in the highest excellence(止於至善) just is the ideal world as the ultimate goal of Confucianism' dream.

Key Words : 大學(The Great Learning), 三綱領(Three-Doctrine), 八條目(Eight-Categories), 對應關係(Corresponding Relationships), 國家統治方法論(Method of the states being rightly governed), 理想世界(the Ideal World)

